

2020 년 3 월 15 일 “그가 누구이기에”(막 4:31-41)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물을 건너던 중에 만난 풍랑을 무서워했던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으시며 그들에게 일어나야 할 삶의 새 측면을 일깨워 주시는 내용입니다.

[1] 제자들의 상태

막 4:1~34 을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비유로 가르치시고, 34 절,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아마도 자기들에게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셨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날 저녁 배를 타고 물을 건너는데, 바람이 세차게 불고 급기야 배에 물이 들어왔습니다. 제자들은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잠만 주무시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낮에는 자상하고 친절하셨던 예수님이 갑자기 무심해졌다고 느끼며 섭섭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며 따졌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습니까?’(38 절) 이 상황에 처한 제자들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말을 살펴보면:

“죽게 되었는데도” -> ‘재난/폭력 등으로 멸망 당하고 사멸하게 되었는데도’라는 뜻. 그들은 폭풍 속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성급하게 믿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개역개정) ‘돌보지 않습니까?’ -> ‘걱정 조차도 안 하십니까?’ 무관심하시다는 뜻.

제자들 말을 정리하면 예수님께 불평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살릴 수 있다고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랬을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관심은 커녕 무관심/무정함을 느끼면 얼마나 서운하고 화도 날까요?

코로나 19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도 못 오는 등, 많은 제약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물이 거대한 세상에 이리 큰 충격을 주는 현실이 당황스럽습니다. 보이지도 않던 바람이 점점 세어져서 배에 물이 차오르듯,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옮겨져서 나라와 카운티에 차오르는 것을 보면 불안하죠.

이 불안은 염려를 낳고, 염려가 많아지면 종종 과잉 반응을 일으킵니다. 지나쳐서 나쁠 게 없다고 말하죠. 그러나 불안과 염려 속에서도 서로 위해주고 서로 지켜준다면 불안과 염려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차하면 심신이 지치게 되고, 더 힘들어지면 마음의 침체와 더불어 분노가 쌓일 것입니다.

분노(화)는 분노에서 멈추지 않고 원망과 불평을 동반합니다. 이것은 나의 주변과 갈등을 일으키고, 관계에 금이 가게 하고, 결국 사랑 없는 결국, 멸망에 봉착합니다. 본문의 상황에서 제자들은 두 가지에 장악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것은 조정 불가능한 폭풍의 위험, 두번째는 이미 표출된 분노의 말과 행동입니다. 이것에 대해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2] 예수님의 반응

(1) 바람을 꾸짖으셨습니다. (2)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셨습니다.

(1) v.39 바람을 ‘꾸짖으심’ -> 꾸짖다는 말은 주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귀신들에게 잠잠하라고 꾸짖으시고(막 3:12),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꾸짖으십니다(눅 4:39).

예수님은 이런 짓을 하는 바람을 싫어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바람과 바다는 순복했습니다. 사건의 불씨였던 바람은 의외로 빨리 제재되었습니다.

(2) 두번째 제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v.40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무서워' -> 이 원어는 신약에서 오늘 본문과 계 21:8 에만 두 번 쓰입니다. 계 21:8 "그러나 비겁한 자들(the cowardly)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 이 용례를 보면 하나님 자녀에게 어울리지 않는 뒤틀린 모습과 같다는 뜻입니다.

v.40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바람을 꾸짖는 것처럼 꾸짖는 말씀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한 길을 아직 못 찾고 있구나. 그건 너희 안에 있는 믿음이야" 일깨워 주십니다.

제자들은 바람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보고서야 알았습니다. 왜 이렇게 무관심하냐고 따질 주님이 아니라, 그분이 함께 하시므로 어떤 위기 속에서도 바라보았어야 할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민 21 장. 광야에서 백성들이 죄를 지어 불뱀을 보내셨을 때, 구원받는 길은 불뱀과 싸우는 것도 아니고, 불뱀을 쫓아내 줄 의지의 대상을 찾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둥 위에 달아 놓은 구리 뱀을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살 길이었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풍랑 속에서 주무시는 예수님께 따지기만 했지만, 오히려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니, 우리가 가졌어야 할 믿음의 차원을 놓치고 있었구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이제 주님을 진지하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주를 바라봄!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 주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은 우리가 처한 불안의 바닥과 멸망에서 구원받는 길을 열어줍니다. 요즘 벌어지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의 심령의 깊은 중심에서 역사하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아래의 질문 외에도 얼마든지 다른 질문과 함께 토의하실 수 있습니다.)

1. 나는 위기와 고난이 닥치면 어떤 감정을 갖습니까? 이 감정을 주로 어떻게 해소합니까?
2. 위기와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나는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믿음'이 있습니까?